김영록 지사, SK에 통합특별시 반도체팹 설립 요청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서한 보내
RE100 최적지·우수 인재 등 강조
숖 "균형발전 역사적 이정표 될것"

전남도 실국장 정책회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도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삼아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서한문을 보내 반도체 팹(Fab) 설립을 요청했다.

서한문은 지난 4월28일 국회 특별강연에서 최태원 회장이 언급한 AI 산업 성장의 '4대 보틀넥(자본·에너지·GPU·메모리)'과 "전기가 있는 곳에 가야 한다"는 소신 발언에 대해, 전남광주특별시가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진 준비된 최적지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10월 최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샘 올트만 오픈에이아이(OpenAI) CEO와 함께 결정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 결단에 대해 "소외된 지역민에게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뜨거운 희망을 준 쾌거"라고 감사를 표하며 "이제는 그 희망을 반도체 산업 유치라는 더 큰 결실로 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한문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임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김 지사는 서한문에서 "통합특별시는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약 20%를 공급하고 잠재량만 444GW에 달하는 에너지의 보고"라며 "신안·영광·해남의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단지는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생존 조건인 RE100을 실현할 사실상 국내 유일의 입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광주특별시는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핵심 거점으로서 ARM스쿨,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에너지공대, 전남대학교 등 특화 대학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R&D)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파격적인 재정·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꼽았다.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통합지원금 20조원을 전향적으로 활용할 모든 준비가 돼 있으며, '반도체 특별법'에 따른 클러스터 지정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글로벌 트렌드인 '팹 분산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대만 TSMC나 미국의 사례처럼 반도체 팹 분산 배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프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글로벌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통합특별시로의 팹 확장은 SK의 초격차 경쟁력을 다지는 동시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SK그룹의 위대한 결단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 민국의 새로운 판을 여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SK그룹의 비전을 신속하게 실현하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력한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재정 기자

진보 3당 '신호등연대' 전남광주 공동선대위 출범

노동당·녹색당·정의당 공동대응 선언
"일당 독점 타파 진짜 진보정치 필요"

전남·광주지역 진보 3당인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6일 6·3 지방선거 공동 대응을 위한 '신호등연대'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 연대에 나섰다. 〈사진〉

진보 3당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인구 소멸과 경제적 격차 문제는 불평등 위기가 고착화된 양당제와 독점 정치의 결과"라며 "시민의 보편적 삶의 질 보장과 상생을 위해 신호등 공동선대위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우리 지역에서 내란 옹호 정당인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당선 위기에 놓인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힘 후보를 5% 이하의 낮은 득표로 엄중히 심판하고 진보 3당이 하나 돼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어진 녹색당 부대표는 "전남 농민들이 신규 핵발전소 추진 계획 등에 맞서 거리에 나서야 하는 현실을 멈추고 약자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신호등 연대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인 강은미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비상한 결단도 결국 낡은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없다"며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정치, 불평등에 맞서는 정치, 기후위기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진정한 변화를 신호등 연대를 통해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진보 3당은 핵심 비전으로 불평등 해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제시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적정임금·안전한 일터 조성, 탈핵 기반 재생에너지 전환, 녹색일자리 창출, 햇빛·바람연금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변은진 기자

禹의장, 장동혁 찾아가 개헌안 표결 협조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법 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방문했다. 그는 장 대표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개헌과 관련해서 표결하게 되는데 협조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에 맞춘 단계적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우선 과제는 지방선거 승리"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연임 성공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6일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내년 5월까지 후반기 국회 1년간 원내 전략을 지휘하게 된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원내사령탑으로 다시 선출됐다.

한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한 이번 선거는 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는 투표에 앞서 진행한 정견 발표에서 "최우선 과제는 지방선거 승리"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태도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민주당의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의 당면 과제는 후반기 원구성, 자칭 조작기소 특검법안,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다. /연합뉴스